

주안에 News InChrist



주 . 안 . 에 . 교 . 회 . 뉴 . 스 . 레 . 터 .



Feb. 2016
Vol.4 No.2

- 은혜의 강단
- 교회뉴스 • 화보
- 우리 교구 소식
- 교육부 / 간증 / 칼럼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Valley 818.363.5887 Fullerton 657.217.5558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말씀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2016 '주안에훈련' 프로그램 열기 속 개강

주안에교회 평신도사역훈련원(이하 평사원)에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벧후 3:18) 라는 말씀의 토대위에 2016년도 상반기 주안에 훈련이 시작되었다. 2월 10일 밸리채플 “주안에 말씀”을 시작으로 2월 12일 플러튼 채플 “주안에 말씀” 그리고 2월 23일부터는 주안에 빛, 주안에 삶, 그리고 주안에 일꾼이 순차적으로 시작 되었다. 특히 주안에 일꾼은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주안에 양육 마지막과정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임문과정이라 할 수 있다.

최혁 담임목사는 주안에훈련은 주안에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꼭 받아야 하는 필수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신앙의 상태가 바로 세워짐은 물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특히 여러 과정이 접수 첫날 마감되는 등 호응도가 뜨거웠으며, 이번에 개설된 ‘주안에 빛’은 지난 과정과는 달리 시대별 성경통독과정을 통해 교역자들과 성경 66권 전 과정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세히 강의 해줄 것으로, 기대가 매우 크고 또 크게 유익한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안에 빛을 이미 마친 여러 성도님들도 이번 ‘주안에 빛’을 또 신청하신 경우도 있어서 주안에 훈련의 열기가 매우 뜨거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주안에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주안에 훈련 과정을 기쁨으로 이수하고, 나아가 사역훈련 과정인 주안에 제자, 주안에 사역 과정을 잘 마치고 머지않은 장래에 모두 함께 사역의 현장에서 뛰고 달릴 날을 기대하고 오늘도 훈련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며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이광영 기자 |



■ 은퇴감사예배

온 힘과 맘 다해 달려온 길... 남은 경주 힘차게!

"지혜 있는 자는 공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지난 2월 5일 금요일저녁 7시45분 밸리채플에서 은퇴감사예배가 드려졌다.

이번 은퇴예배를 통해 이재조 전도사, 김종태, 김중환, 권태홍, 나형철, 이기숙, 이정재, 이필주, 정해권, 조규진, 황익석 장모와 김신실, 김헬렌, 육경희, 황명자, 황영옥, 황화미 시무권사 및 강경술, 김영덕 안수집사 등이 하나님 앞에 온 힘과 맘을 다해 달려왔던 길의 한 정점을 찍게 되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두손 건어부치고 열심을 다하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은퇴예배를 함께하기 위해 밸리채플을 포함, LA와 플러튼 채플에서도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 자리를 채워 주중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는 사랑 가득한 시간이었다.

김헬렌 권사는 은퇴소감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할 수 있었던 지난 날이 영광스러웠다는 마음을 전했다.

세상 살면서 누구나 소설 한장의 사연들을 갖게 되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세월은 그것들과는 달라야 했고 달랐다. 은퇴하는 당사자는 물론 자리를 함께한 우리 모두 쓸쓸함이나 허탈함이 아닌 감사와 섬길 수 있었고 섬김을 받았던 시간이 아름다웠고 남은 시간을 더욱 하나님께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새 출발



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닮기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모든 은퇴자들을 위해 곁게곁게 이름 석자를 새긴 성경책을 전하며 열심을 다했던 시간을 격려하며 이후로 시작할 3막 2장을 두손에 꼭 쥔 성경책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길 다짐하는 눈빛들이었다.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헌신 봉사했던 분들을 향한 감사와 격려의 여러 성도들의 격려의 메시지도 빠지지 않고 전했으며 최혁 담임목사는 은퇴란 하던 일을 멈추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RE-TIRE 즉 타이어를 새것으로 갈아 끼우고 매진하는 것이라며 지금껏의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더욱 열심히 새힘으로 달려줄 것과 믿음의 후배들의 올바른 롤모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버거웠을 이민생활 중에서도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으로 놓기를 두려워 하지 않았을 믿음의 선배들의 은퇴예배는 이제 내 역할을 다했구나가 아니라 지난 수고의 일막을 마무리하고 이제 부터 시작한 새로운 시간을 기대하며 격려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리드리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셨음과 우리를 사랑하시길 독생자를 내어주시까지 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확증해주셨던 예수님의 희생, 그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들과 다를 수 밖에 없음을 깨닫는 귀하고 특별한 시간이었다. 주님 사랑합니다.

| 채은영 기자 |

■ 주안에라이프

배움의 열기, 섬김의 기쁨, 봄학기 등록하세요~



2016년도 봄학기 주안에 라이프(이하 주라이프)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우내내 외부출입이 뜸해졌고 또 포터랜치 개스누출 문제로 집을 떠나 호텔이나 친척집 등에서 생활하시던 어르신들에게 이제 취미 생활과 함께 건강을 위해 운동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주안에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긴다는 목적으로 주안에교회 성도님들 뿐 아니라 지역 인근에 사시는 분들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주안에라이프를 즐기실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안에라이프 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재주 안수집사는 지난번에는 꼭 100분이 참여하여 뜨거운 배움의 열기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12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주안

에교회 성도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월 2일 개강하여 12주동안 계속되는 주라이프에는 건강댄스, 스마트폰, 오토하프 등 12개 과정이 있으며 2개과정을 동시에 수강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안경숙, 김현숙 팀장이 이끄는 20여명의 식사봉사팀은 내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는 음식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으며 매년 횡수가 거듭할수록 새로운 기쁨과 감사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주안에 라이프는 단순히 매년 치러지는 행사가 아니고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주님의 사랑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주라이프 팀원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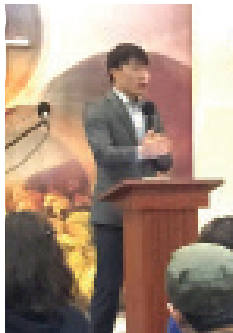
| 이광영 기자 |

■ 교육부 교사 교육

가르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확실하게 서서 사명 감당

주안예교회 교육부 교사모임이 지난 20일 오전 10:30분 LA 예배처소에서 이루어졌다. 박현동 목사님이 "말씀의 청지기로서의 교사" (고전 4:1-4, 골 2:2)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며 그 양육이란 의미는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산고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사랑'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 또한 그 아이들의 영적인 충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끝까지 교사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헌신해야 한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은 내가 갖고자 한다고 가질 수 있는게 아니고 주님께서 기쁨마음으로 주실



때에 비로소 헌신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정립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교사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한다" 등 교회에서 아이들



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셨다.

말씀이 끝나고 두 채플과 LA예배처소의 ICJOY, ICNOW, ICPOWER 교사들은 소그룹으로 나눠 각자의 방에서 미팅시간을 가졌다.

물론 낮이 익은 얼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 날 처음 보는 얼굴에 서먹서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제 2세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회(교사) 역할의 중요성이라는 공통 관심사에 그곳에 모인 교사들은 금방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예쁜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교사가 될수 있을까' 서로 의견을 묻고 나누며 친숙해져 갔다.

이번 모임의 목적을 이명재 교육부 전도사님에게 들어보았다.

"정기적인 스케줄 안에서 사역 일정을 나누고 서로 교류하고 모이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사들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며 더 나아가서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한마음으로 교사들이 먼저 세워지기를 바란다" 는 것이다.

더 체계적인 말씀 교육을 위해 교회/교육부 차원의 공식적인 교사 훈련이 네번 정도 있을 예정인데 그 첫번째가 20일 LA 예배처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하는 말이 있었다.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그 아이들의 영혼이 너무 귀해요" 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롬 12:6-7),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2)

| 박희정 기자 |

■ 코람데오 물댄동산 사역

아름다운 마음들이 함께 모여 주의 은혜 나누며...

2016년 2월 6일(토), 올해 첫 물댄동산 방문이 있었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코람데오 한어청년부는 물댄동산 선교회를 방문해 함께 예배 드리며, 식사를 같이 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게 된지 1년 정도가 넘었는데, 매번 보는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물댄동산 선교회는 장애인들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사회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선교회입니다.

씩스달마다 함께 하는 코람데오 한어청



년부는 받기만 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나가고 베푸는 신앙인이 되고, 바깥으로 뻗어나갈 줄 아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는 취지로 발걸음을 물댄동산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배 다음으로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식사시간이 될텐데요. 이번 식사는 플러튼 채플 경조

구제국에서 사랑을 담아 밥상을 정성껏 차려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계순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한수현 집사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다음 물댄동산 예배와 교제는 4월 첫째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이성우 전도사 |

■ 주안에삶 인도자 모임

모든 성도들의 필수코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2016년도 상반기 주안에교회 평신도교육 “주안에 삶”이 시작되었다. 벨리채플(2/20일), 플러튼채플(2/21일) 예비교육을 시작으로 7주간 각 권(1,2,3권)별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에 앞서 인도자들에 대한 훈련이 2월6일 오후 2시 LA에배처소에서 있었다.

양국민 전도사의 인도로 약 30분간 찬송과 기도로 무장한 후, 각 권별로 소그룹 모임을 가졌는데, 각 권별 리더로는 이정미 집사, 정도영 장로, 이방길 장로가 수고하였고 인도자들과 각각 2시간정도 귀한 시간을 같이했다.

올해도 벨리채플 여자 1권은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 최혁 담임목사는 이 과정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과정이 아니고 주안에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과정인 만큼 모든 성도님들이 꼭 교육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남자 2권 인도자로 수고하는 안덕문 안수집사는 주안에 삶은 우리의 신앙상태를 점검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길잡이이며, 인도할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시간시간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것을 권면했다.

올해도 주안에 삶, 주안에 빛, 주안에 말씀을 모두 마치고 나아가 주 안에 일꾼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쓰임 받기를 기대해본다.

■ 프로그램 인도자 소감 ■

"성경66권 구속사적 흐름 따라..."



한대일 전도사(주안에팀) 주안에팀 훈련은 성경 66권의 개요 강의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과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지 등볼이

되어주는 훈련입니다. 강의는 총 12주 동안 6명의 부교역자로 나누어져 2강의씩 전문성있게 진행하며, 플러튼채플을 시작으로 벨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강의를 맡게 되어 거룩한 부담감도 있지만 성도들과의 나눔 속에서 '진실한 빛'을 발견하게 될 기대감 또한 갖고 있습니다. 몇달에 걸쳐 준비한 교역자들의 강의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진리를 밝히는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강의를 준비하고 또 강의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써 말씀을 알려주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소통하며 함께 배워가며 우리에게 주신 장성한 분량까지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배워가는 시간동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주안에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더 이해"



이방길 장로(주안에팀) 주안에팀 프로그램은 TEE(Theological Education Extension) 교재를 기반으로 주안에교회 평신도사역훈련원에서 연구하고 준비한 훈련으로 평신도에게 필요한 신학적 지식과 교육을 통한 재생산에 초점을 둔 교회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11주 동안 진행되는 주안에팀 훈련을 통하여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할 소양을 배우고 평신도 사역자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번 제 1기 주안에팀 훈련 인도자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에는 벨리채플에서 화요일 저녁에는 플러튼채플에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

님과 더 가까이 일본 아니라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며 배려하여 아름다운 주안에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하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훈련받는 자세로"



김옥희 집사(플러튼채플 주안에팀 2권)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 훈련의 인도자로 섬기게 됨을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훈련받는 자세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안에 삶 2권을 준비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훈련에 임하는 한 분 한분을 만나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안에삶 2권은 말씀, 기도, 영적싸움, 전도 모두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한 성도면 늘 들어왔던 주제들이지만 지식으로 알고 있던 말씀이 나눔을 통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훈련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함께 하셔서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



서정아 전도사(벨리채플 주안에팀) 먼저 부족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마음엔 항상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

다 (시37:5) 의 말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일은 많지만, 그 중의 하나가 말씀을 바로 읽고, 알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성령님께서 '말씀을 많이 읽으라'라는 감동으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는 후, 저는 최선을 다해 내 손에서 말씀을 놓

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분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물려 올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삶에 그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승리의 반석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신선한 공기와 더불어 20장씩 훈련생과 같이 또박또박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을 때면, 마치 천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듯 합니다. 또한 한 장씩 넘길 때면,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포개어 넘겨주시는 그 느낌. 그리고 다 읽고 나면 또다른 행복감에 젖는 훈련생들의 모습... 저는 확신합니다. 주안에 말씀을 다 읽고 난 후에도 성령님과 더불어 계속 읽으며, 묵상과 함께, 삶의 깨달음과 변화까지.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찾는 우리모두가 되리라는 것을...

"환경적 어려움 사명으로 감당"



김규실 집사(벨리채플 주안에팀 2권) 이번 주안에삶 8기 인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평사원 스태프들의 간절한 사랑의 기도로 인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주의 시간동안 나 스스로가 모범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 내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라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신도 훈련 중 주안에삶은 꼭 거쳐야 할 기본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정립하고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영적무장과 삶 속에서 무엇을 이겨야 하는지 적용의 단계,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태도에 대해 함께 배우며 나누는 너무나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번 제가 맡은 그룹의 형성은 30대 초반부터 70대까지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성령님의 다이나믹이 일어나는 깊은 나눔과 교제를 기대해 봅니다.

■ 발렌타인 뱅퀀트



하나님에 대한 사랑표현, 즐거운 ♥ 축제

지난 2월 14일 주일엔 교육부 ICKIDZ 와 ICY (중고등부) 에는 Valentine Banquet 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엡 5:2)" 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전하며 빛이 되는 것을 주제로 ICKIDZ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다.

그후 이루어진 각 학년별 공과 공부 시간에는 미리 준비해온 캔디, 초콜릿을 담을 수 있는 구디 백 (Goodie Bag)을 만들어 아이들이 서로 나누며 "I love Jesus" "Jesus loves me" 가 새겨진 커다란 하트 스티커를 붙여 역시 발렌타인 데이는 캔디, 초콜릿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발렌사인 데이"가 될 수 있다는 지혜를 크래프트를 통해 알아가기도 했다.

또한 아이들에게 스티커로 된 예수그리스도를 만들며 그 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한명 한명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고 고백하는 시간도 이루어졌다.



같은 시각 이층에 자리한 ICY 방에서는 중고등부 Valentine Banquet 이 이루어졌다. 좀 더 큰 아이들이 만큼 아래층 아이들의 (ICKIDZ) 분위기와 사뭇 달랐다.

드레스를 입고 타이를 매고... 주일날 아이들은 한껏 멋을 내고 교회에 온듯했다.

Valentine 에 어울리게 예쁘게 잘 꾸며진 공간에서 "Love" 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15:5-13 말씀을 ICY 전도사님이 전했다.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게임도 하고 다시한번 아이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LOVE' 를 깊이 새기는 즐거운 발렌타인 데이였다.

"Love each other as I have loved you," (John 15:12) | 박희정 기자 |

■ 예배자 학교

예수님 알아가기, 동심들의 12주간 말씀훈련



지난번 다윗스토리에 이어, 예배자 학교 시리즈 2를 예수님의 이야기와 복음에 대해 삶 속에서 기억시키고자 하는 포인트로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들 수 있는 재료로 이번 레슨들은 각 과의 주제를 시리얼로 매치시켜가는데 아이들의 삶과 연결된 스낵이다보니 다음 순서의 시리얼을 확인해가며 기다리곤 합니다.

말씀으로 건강한 생각과 기준을 생활 속에서 찾아갈 수 있길 소원하며 유익한 말씀교육의 시간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12주간의 시간동안 꾸준히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며, 레슨 스케줄에 배정된 시리얼 스낵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니콜 전도사 |



■ 13교구(밸리채플)

기도로 하나되는 가족 공동체

김용수 장로와 김규실 집사가 교구장으로 섬기는 13교구는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구역장으로는 오철호, 오병순 집사, 2구역장에 안덕문, 안경숙 집사, 그리고 3구역장에는 김재주 안수집사, 김복순 권사가 구역가족들을 섬기고 있다. 주안예교회 시무장로인 김용수 교구장은 쉬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교구를 섬겨 구역장들과 구역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 특히 주안예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담당하고 있는 구역장들은 모두 새벽기도에 정진하고 있으며 “One Voice”를 통해 교회와 교구와 구역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

1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오철호 집사는 미디어 사역국에서도 봉사하고 있으며, 1구역 가족은 총 17명의 성도들로 지역적으로는 노스리지, 포터랜치, 로스엔젤레스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다수의 구역 가족이 현재 미디어부, 임마누엘 성가대, 사랑 성가대 등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2구역은 임마누엘 성가대 총무인 안덕문 안수집사와 여선교회 부회장인 안경숙집사가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등록된 가족은 모두 10명의 성도들로 주거지역은 노스 할리우드, 시미벨리, 글렌데일, 로스엔젤레스로 광범위하다. 많은 구역가족들이 주안예라이프, 여선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등의 사역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3구역은 주안예라이프 국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김재주 안수집사와 김복순 권사가 구역장으로 섬기는 구역으로 등록된 구역가족은 총 15명의 성도로 주안에 라이프, 차량봉사, 사랑성가대 등의 사역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주거지역으로는 포터랜치와 벤나이스로 분포되어 있다.

13 교구는 특별히 삶의 연륜이 높으신 권사님들의 교구봉사 참여도가 높으며, 많은 교구 가족들이 전도부에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기뻐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꾼을 키우는 일을 즐거워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인 오병순 1구역장의 남동생 송병규 형제가 구원 상담 후 예수를 영접하여 모두의 기쁨이 되기도 했다. 교구 가족원 모두가 형제자매의 사랑나눔에 아낌이 없으며 몸 되신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 속에 지체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

전 교구 가족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영적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꿈을 가진 13교구는 교구장인 김용수 장로의 심장이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합심하여 기도하고, 모든 구역장들이 구역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항상 기도 드리고 있다.

또한 성령 안에서 44명의 교구식구 모두가 항상 하나 되기를 기도하며 온 교인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박창신 기자 |

■ 3교구(LA 예배처소)

밸리서 '집단지주' 정이 넘쳐요

라크라센타, 파사데나 산동네부터 LA 다운타운까지 꽤 넓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인들로 이뤄진 3교구는 제 1구역 6가정 13명과 제 2구역 10가정 15명으로 모두 28명의 대식구로 이뤄졌다.

1구역장에 고용흙 집사, 고하나 권사 그리고 2구역장에 김재동 집사, 김정혜 권사와 교구장으로는 나형철 장로 나윤자 권사가 맡고 있다. 원래 밸리채플 2교구로 20명의 교구원들이 함께 섬기다 LA 예배처소를 설치하고 교회에서 2교구를 LA 처소로 이동하도록 결정했을 때 20명 전원이 LA 로 이전하기를 다함께 원하였다. 이는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함께 교구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끈끈하고 두터운 정 때문이었지 않나 생각된다.

3교구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화합에 힘쓴다. 우리 3교구가 지향할 신앙생활의 지침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 교구의 성향과 특징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고용흙 1구역장은 성격이 활달하고 미식가인데 구역원, 교구원들에



게 맛있는 음식 대접하기를 좋아하는데 밸리채플 정혜옥 권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그 교구가 LA로 옮긴 후 밸리채플의 브니엘 카페에 줄 서서 오더하는 일이 많이 줄었다” 고 할 정도로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주는 마음 넉넉한 구역장이다.

김정혜 2구역장은 15명의 대식구들을 매주 23번 전화심방이나 직접 만나 보듬어주는 수퍼 구역장이며, 구역예배 때는 1시간이나 되는 구역예배 공과공부를 인도하면서도 전혀 지루하지 않게 예배 참석자 전원이 질문과 답을 하게 한다. 해박한 성경 지식과 인도가 정말 일품이다.

나형철 교구장은 교구원들 중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질병을 알게 되는 경우 전교구원들이 함께 모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체력도 돌봐주는 등 힘들 때 함께 기도에 힘쓰도록 교구원들을 인도하고 구역장님들을 섬기고 있다.

김경자 교구카톡방 방장에게 우리 교구의 자랑을 말해달라고 했더니 1)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교구 2) 함께 기도에 힘쓰는 교구 3) 교제를 통해 서로 사랑하며 영적 길을 걷는 교구 라며 자기 말로도 너무 교과서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이 그렇다고 말했다.

LA 3교구는 지난 2월 8일에 2월에 생일이 있는 교구원들 합동 생일 잔치겸 구정 떡국 잔치에서 앞으로 3교구가 지향할 점을 의논했는데 다음 2개항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 주일날엔 3교구원들만의 교제가 아니라 타교구원들과 더 많은 교류를 통해 LA Chapel 전체의 화합에 힘쓴다. 2) 앞으로 3년 안에 3교구를 모태로 28명의 현재 인원의 10배 정도 즉 250명 이상 되도록 전도를 생활화 한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LA는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전도 대상도 많으므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자는 뜻이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LA 3교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귀한 교구가 되기를 늘 전 교구원이 함께 기도한다.

| 나형철 기자 |

■ 교역자 칼럼

현대는 속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피드 문화가 어느덧 우리 사고 속에 들어와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속도를 혁명에 비유해서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썼다

우리가 접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스피드하고 연관되어 있다. 좋은 컴퓨터의 기준이 스피드에 있고 좋은 차의 기준이 튼튼함 보다는 스피드에 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돈벌이는 스피드에 관련된 일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들을 한다.

인터넷 속도, 급행료 등 돈으로 속도를 사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사고가 스피드에 익숙해져 모든 것을 스피드에 따라 가치를 매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가치기준이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 안에는 귀중한 비밀이 있는데 기다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기다림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아이들을 보면서 기다림에 약한 아이들이 되어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유는 다가오는 시간은 그들이 만들어 갈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말이 있다. 기다린

다는 것은 기대가 있다는 것이다. 내일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투덜거리지 않는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기대가 있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 분명

기 다 림

박현동 목사



하다는 것이다. 어떤 환경이 맞닥뜨려도 비생산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같은 한 시간을 보내어도 어느새 아쉽게 지나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자주 시계만 보게 되는 지루한 시간도 있다. 차이는 내가 느끼는 느낌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에게 시간은 언제나 아쉽다.

기다림의 방향은 다가오는 시간이지 지난 간 시간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가오

는 시간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기다린다. 무엇이 그리 아쉬워서인지...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움만 주지만 다가오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를 준다.

내가 살아낸 시간을 기억하며 때론 부질 없다 말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너무나 쉬운 체념은 지금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가오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스스로 안아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다.

기대가 있는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여유이고 수고로움이 아니라 기쁨이다.

기대가 있는 기다림은 우리가 언제나 방향 감각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 준다.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말이 막연함으로 들려 오지 않고 설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란다. 기대가 있는 기다림... 설사 그 기다림의 끝이 비록 내가 원하는 기대가 무너진다 해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바로 그분과의 만남이다. 그 설렘이 우리의 기다림의 이유이고 하루를 버티는 힘이고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지 않을까!

■ 추천영화

다시보는 주기철 목사 일사각오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 1944년 4월 21일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1897~1944)의 그 고귀한 삶을 재 조명한 영화 “일사각오(一死覺悟)”가 2016년 부활절을 앞두고 3월 17일 한국에서 개봉예정이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일제 권력에 맞서 싸운 주기철 목사의 신앙과 삶을 생생한 증언과 당시 상황 재연을 통해 감동적으로 소개한다.

과연 진정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1938년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주기철 목사는 “일사각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일사각오’의 길을 걸어가다 광복을 1년여 앞두고 1944년 4월, 47세의 나이로 순교한다.

일제의 탄압에 못 이겨 조선의 종교단체들은 하나둘씩 신사참배를 수용하기 시작했고 조선예수교장로회마저 신사참배를 결의하기에 이른다. 당시 일제에 맞서다 폐쇄된 교회는 약 200여개이며 목회자와 신도 2천여명이 검속되었고 그 중에 50여명이 순교했다.

오산학교를 졸업한 주기철은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으며, 스승 조만식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물산장려운동을 펼쳤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현실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의 민족정신은 신앙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주기철목사가 떠나고 70년이 흘렀다. 우리에게 ‘일사각오’라는 믿음의 유산이 남았다. 참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과 맞바꿔가며 신앙을 지켜내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만나기를 추천 드린다.

Kim Sun Young

원 장

Helen Kim

Bus. Hours:
Mon. ~ Sat.
9:00 AM ~ 7:00PM
전화예약 바랍니다.

김 선 영 미 용 실

▶ 6772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Tel (714)228-9001
Cell (562)315-3090



주안에예배는... 간절함, 뜨거움, 열심, 집중



“주안에” 2016년 3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신실, 라형철, 박창신, 박희정, 안경숙, 안덕문, 오병순, 오희경, 이하나,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인섭, 김다슬 (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





■ 추천도서

편견과 왜곡된 시각에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너무나

도 다릅니다. 이 책속에서는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해매며 사는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참사랑이 보입니다.

구제불능의 죄수에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외면하고 살던 한 여인을 통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망가진 그의 삶속에서 행복과 감사를 찾게 하십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사형수들에게 일정기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비단, 흑이라도 잘못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값비싼 진주를 오물속에서 사는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을 어리석게 보던 편견 된 나의 눈에서 껍질이 벗겨지

는 듯합니다. 내가 대학시절에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 죄수 한명이 사면되어 주일날 교회로 찾아 왔습니다. 마치 나는 죄 없는 의인인 듯 죄수였던 그가 소름끼치게 무서워서 진땀을 흘리며 돌려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준비되지 않은 무늬만 신앙인이었지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유로 교만하여 자아의식이 강해지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 시키며 살아갑니다.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도와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변화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얼마 전 목사님께서도 설교말씀 중에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껏 오랜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속의 한 구절 "헤드라이트를 켜야만

보이는 캄캄한 밤에 내리는 겨울비처럼,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았다" 라는 말이 나의 심장을 때립니다. 어두운 세상을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캄캄하고 어두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던 미성숙한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주셔서 등불되어 주시고 영안의 눈을 뜨게 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내 나는 마음이 조금해집니다.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는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기전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또한 지금 세상에 살지만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사형수와 전혀 다를바 없는 수많은 우리네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를 꼭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조금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상처의 아픔이 치유된 경험을 통해서만 상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릇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이해해야 함으로, 극도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배울 수 있기에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 김신실 기자 |

UCOME AUTO SALES
새 차 • 중고 차 • 매 매 • 리 스 • 좋은 보험 소개
자동차를 싸게 사실 수 있는
One Stop Shopping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박선우 / Paul Park
Cell: (213) 880-1267
p1267w@hanmail.net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NU SKIN
THE DIFFERENCE DEMONSTRATED™

PHARMANEX™
A Natural Healthcare Company

3700 Wilshire Blvd. #265 LA CA
Cell : 818.648.1224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크리스찬 신물센터 기독교 종합백화점
성화, 성구책가,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개운, Tape, CD

대표 강 병 찬
TEL: (323)737-7699, (323)737-4526
FAX: (323)733-8850
Toll Free: (800)669-0451
인터넷 쇼핑몰: www.koramdeo.com
E-mail: cbc0191@hotmail.com

영업시간 9:30AM~7:00P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AYCE GOGI
KOREAN BBQ

〈구 덕수장〉
7128 Van Nuys Blvd
Van Nuys, CA 91405
818-465-3050

"감사와 기쁨의 여정... 남은 날을 밀알처럼"

옛그제 권사취임을 한 것 같은데 어느새 은퇴하게 된다니 참으로 후회와 반성, 죄책감 등이 거미줄처럼 엉기어 "죄송합니다" 의 언어가 시냇물 흐르듯이 흐르는군요.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그동안 배우고 훈련 받은 것을 이제야 시작해 보려 하는데 은퇴식을 하는 이 시점에 한편으로는 아쉽고, 그동안의 미숙했던 모습들이 한편의 영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나무도 한시절 꽃피우다가 자신을 키워준 대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실감하며 한눈을 파는 사이에 겨울이 닥칠지 모르니 오늘 하루가 나에게서는 소중한 하루요, 조금씩 더 충성, 성실해야 함을 인지하게 되는군요. 그간 수많은 진주알같은 양심을 주신 것 중에 오늘이라는 순간이 쌓여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새기면서 그동안 가르침 받은 것을 잘해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을 가지며 물러나더라도 마음으로는 다시 시작해 보고싶은 심령이랍니다.

벧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바구니처럼 축복과 감사로 쓰면 자꾸만 내용물이 생겨나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항아리처럼 순종과 섬김으로 사용하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진리를 배우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깨달음을 주신 주안예교회에게 "감사합니다" 의 단어가 노래하듯이 불러드립니다.

저희의 남은 날들을 감사로 물들이면서 꽃향기에만 취하지 말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숨겨놓은 내면의 향기를 맡으며 더불어 살면서 원을 그리는 삶의 자세로 우리 주안예교회 가족들과 사슴처럼 서로 의지하고 껴안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이나, 잘못들을 기다려주는 곳, 지칠 때 쉴 수 있는 곳, 거둬낼 수 있는 곳인 주안예교회라는 친정이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안예교회 담임목사이신 최혁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주시는 양식을 저 하늘의 별처럼 언제나 우리의 가슴 안에서 빛을 발할 것이며 우리 영혼 속에서 늘 살아서 숨 쉴 것입니다.

비록 고단한 삶이 닥치고 힘든 세상이 이어지더라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바른 길을 향해 달려갈 우리 방주의 동반자들이 있다는 것이 크나큰 축복이고 행복한 여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해서 푸른 하늘을 올

려다보며 하늘빛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니 모두가 다 새롭고 소중한 잠언의 주옥같은 말씀으로 살아 나면서 주안예교회를 생각할 때 행복이 포도송이처럼 열리는 것을 보는듯 합니다.

우리 주안예교회를 마음껏 사랑하고 싶으며 우리의 남은 날들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고,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딸들이 되고 싶은 우리 은퇴하는 권사님들의 마음을 다소나마 대신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헬렌 권사 |

성경퍼즐
정답

< 1월호 >

두	기	고		기	묘	자
란		기	스		아	구
노	아	바	벨	론	함	수
	바	알		라	미	소
		패	장		루	스
	항	오		독		바
축	복		장	신	구	분
나		인	자		속	담
서	기	장			보	세

1월호 당첨자: 김영희B, 김준근, 김지연, 박경원, 박미자, 오병순, 이동훈, 이지혜, 조혜숙, 황영옥, Paul Lee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집에서 시장기를 느낄때나 간단한 모임을 위해 쉽게 만들수 있는 **고구마 튀김**은 열량과 지방의 섭취를 줄인 건강식이다. 부담없이 구역 예배나 티타임을 위해 고려해 볼만한 요리라고 생각한다.

재 료 (6인분) 1) **마늘 소스**: 3/4 컵(6 ounce) 마요네즈, 다진 마늘 2 쪽, 레몬 주스 2 1/2 큰술, 소금 3/4 작은술, 후추가루 1/4 작은술

2) **고구마 튀김**: 중간 크기의 길고 가는 고구마 (Sweet Potato 도 가능) 4개, 올리브 오일 2큰술, 소금 약간, 후추가루 약간, 잘게 썬 파슬리(없어도 된다)



조리법 1) **마늘 소스**:

a. 마요네즈, 다진마늘, 레몬주스,

소금과 후추가루를 작은 용기에 넣고 잘 섞는다.

b. 위의 a를 냉장고에 30분 이상 숙성시킨 후 사용한다.



2) **고구마 튀김**:

a. 오븐을 화씨 425도로 예열한다.

b. 껍질째 잘 씻은 고구마를 1~1.5 cm 크기로 채친다.

c. 채친 고구마를 중간 크기의 용기에 담고 올리브 오일이 골고루



발라지도록 잘 섞어 놓는다.

d. 오븐용 구이판에 올리브 오일이 발라진 채친 고구마를 깔고 10~15분동안 구운 후 뒤집어 10~15분 동안 가벼운 고동색이 될 때까지 굽는다.

e. 오븐에서 꺼낸 후 소금, 후추가루 기호에 따라 잘게 썬 파슬리로 양념한다.

f. 마늘 소스와 함께 상에 올린다.



박창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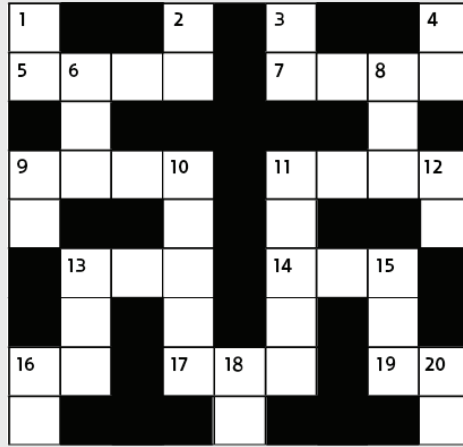
주안에 성경퍼즐

(가로 문제)

5.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하신 일곱 가지의 말씀을 총칭해서 하는 말(눅 23:34, 눅 23:43, 요 19:26-27, 마 27:46, 막 15:34, 요 19:28, 요 18:30, 눅 23:46)
7. 예수님께서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어 준 별명으로 우리의 아들이란 뜻(막 3:17)
9. 가난하고 궁하다, 어렵고 궁하다(신 24:14)
11. 로마의 운동전으로 헬라의 운동전인 드라크마와 동일한 가치를 가졌던 노동자의 하루 품삯(마 20:2, 13)
13. 예수님께서 못박하신 장소, 골고다의 라틴어 번역, 복음서 기자들은 "해골의 곳"으로 표현(눅 23:33)
14.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소아시아에서 선교활동을 종결짓도록 하게 한 환상을 본 곳(행 16:8-10)
16.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밀 다음 주식으로 사용하던 곡물(신 8:8, 룖 2:17, 왕상 4:28)
17. 오직 다니엘서에서만 언급된 사람으로 신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로 기록됨(단 5:30-31)
19.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 에서의 쌍둥이 동생,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횡령(창 25:26)

(세로 문제)

1. 사도바울의 동역자이자 여행동료였으며 의사, 사복음서 중 세번째 책과 사도행전의 저자(골 4:14)
2. 히브리 성경의 시가서(욥기, 시편) 가운데 세번째 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지혜문학의 총체
3.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 대



모든 생물을 () 하시니라 (눅 12:28)

11. 에베소의 은 세공업자로 순례자들에게 의해 헌물이나 기념품으로 사용되었던 아데미 여신의 조그만 은신상을 만드는 수공업자 조합의 일원(행 19:24-25)
12. 하나님께서 형벌로 보낸 치명적인 질병(출 5:3, 왕상 8:37)
13. 팔레스타인 북쪽지역에 위치한 두개의 호수 가운데 더 큰 호수의 이름,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요 6:1, 마 4:18-23)
15. 유다 왕 르호보암의 아들이며 그 왕위의 계승자(대하 12:16)
16. 권세와 위엄을 상징하는 자리(왕상 10:18-20)
18. 에베소 교회의 성도로 베드로와 바울에 의하여 로마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됨(딤후 4:21)
20. 뼈의 발육장애의 하나로 등뼈가 구부러져 큰 혹과 같은 뼈가 볼록 나온 등(레 21:20)

■ 정답을 오려서 이름을 적어 교회 사무실이나 교역자 분께 제출해주세요. 다 맞추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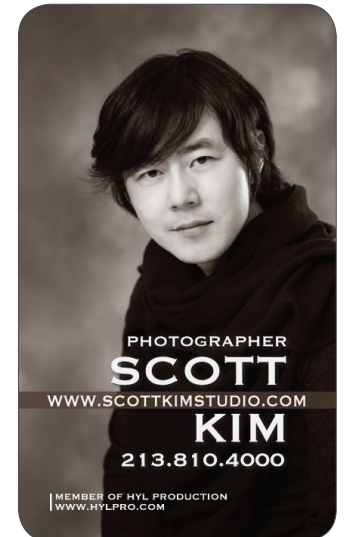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
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
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
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교/우/비/즈/니/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45
LA예배처소/ 1부 오전 9:30, 2부 11: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9:30, 2부 11:30

영성
집회

수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예배처소
목요영성집회/ 저녁 7:45 플러튼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예배처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예배처소 LA Worship Center 1515 S. Santa Fe Ave. Los Angeles, CA 90021

플러튼채플 Cerritos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담임목사 설교방송 안내

- 크리스천 헤럴드TV(CH 18.88) 본방송: 매주(화) 7:00pm~7:45pm
재방송: 매주(토) 9:30am~10:15am
- CTS 기독교TV방송(directv 2092) 본방송: 매주(월) 7:45pm~8:30pm
재방송: 매주(토) 1:00pm~1:45pm
- 라디오서울(AM 1650) 매주 목 11:00~11:30pm